

KIA 불펜, 짧은 영광 긴~ 시련

지난해 '박하전문' 막강불펜 자랑
올 시즌 부상·이적 잇따라
선발 이닝 부족·수비 부실에 부담 ↑
선수간 실력차까지 '총체적 난국'



한 시즌 만에 막 내린 '박하 전문' 시대, 불펜에 불이 붙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 '박하전문' (박준표·하준영·전상현·문경찬) 막강 불펜으

로 눈길을 끌었다.

평균 나이 25세, 고졸 2년 차 하준영을 제외하고 모두 군필이라는 점에서 KIA 마운드의 미래가 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박하전문'의 영광은 짧았다.

지난 시즌 59경기에서 52.2이닝을 소화했던 하준영이 5월 13일 팔꿈치 수술을 받아 가장 먼저 전력에서 이탈했다.

다음 주자는 박준표였다.

서재응 투수 코치가 '불펜의 핵심'으로 꼽았던 박준표는 오른손 약지 인대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예상보다 늦은 9월 13일 전력에 재합류했다.

박준표가 빠지면서 '전문'으로 꾸러졌던 불펜에도 변화가 있었다.

8월 13일 깜짝 트레이드로 마무리 역할을 했던 문경찬이 사이드암 박정수와 NC로 이적했다. 두 명의 투수를 내어준 KIA는 투수 장현식과 내야수 김태진을 영입했다.

전상현 홀로 남아 무거운 책임을 졌지만, 9월 11일 전상현까지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KIA 불펜은 1년 만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

앞서 전상현은 8월 3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에는 왼 종아리 근육통으로 인한 가벼운 부상였고, 하루 쉬고 바로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두 번째 팔소에서 복귀까지는 20일이 걸렸다.

9월 30일 전상현이 돌아오면서 박준표와의 시너지



박준표



하준영



전상현



문경찬

시즌 중반 오른손 약지 인대 부상
9월 13일 늦은 합류...전력 누수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두 사람이 승리를 합작한 경기는 지난 7일 한화, 9일 SK전 두 경기에 그쳤다. 전상현이 12일 여객 통증 재발로 다시 엔트리에 빠지면서 불펜의 한 축이 무너졌다.

지난해 중심을 잡아줬던 '박하전문'의 해체와 실력 차, 선발의 이닝 부족, 부실한 수비로 불펜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13일 NC전은 KIA의 문제점을 집약해서 보여준 경기였다.

KIA는 이날 모처럼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 11-9 승리를 거뒀다. 양현종의 10년 연속 7승(통산 5번째) 기록도 작성됐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밝지 않

지난해 59경기 52.2이닝 활약
올 5월 팔꿈치 수술...전력 이탈

았다.

KIA는 11-3으로 크게 앞선 상황에서 9회말 수비에 들어갔다. 8점의 여유가 있었던 만큼 KIA는 이날 등투한 서덕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김형준에게 3점포를 맞고 4실점, 이어 양승철을 올렸지만 불넷 두 개만 주고 감판됐다. 결국, KIA는 주말 3연전에 모두 나왔던 박준표까지 소환해서 겨우 승리를 만들었다.

홍상삼과 이준영이 올 시즌 힘을 더해주고 있지 않다면 함께 부담을 나눠줄 이들이 부족하다. 새로운 전력으로 영입한 장현식은 기록을 보이면서 최근 10경기에서 10.22의 평균자책점으로 2홀드 2

문경찬 트레이드 후 마무리 책임
시즌 막판 잇단 부상으로 긴 공백

패를 남겼다.

불펜의 전력 차로 필승조에게 과도한 짐이 주어지고 있다. 6월 25일 1루에 합류한 고졸 신인 정해영도 지난주 5경기에 나오는 등 41경기를 소화했다. 프로에서 첫 시즌인 데다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선수인 만큼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선발의 부족한 이닝도 불펜의 어깨를 누른다.

'이닝이터' 브룩스의 이탈로 가속화된 이닝 결핍 속 양현종은 '마의 6회'에 갇혔다. "7전 8기 10승을 달성했던 14일에도 양현종은 6회 1사 만루에서 물러나면서 아쉬움을 샀다.

투수진의 투구수와 팀의 실점을 늘리는 수비도

8월 13일 트레이드로 NC 이적
필승조 해체...시너지 효과 없어

아쉽다. 14일에도 실책이 남았다. 1-0으로 앞선 2회말 2사에서 1루수 유민상이 포구하지 못해 이닝이 종료되지 못했다. 이어 모창민의 팬스 때리는 3루타 때는 좌익수 나지완의 송구 실책으로 타석에서 출발한 모창민이 홈까지 들어왔다.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할 수 있는 KIA 불펜,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해진다.

필승조는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확실한 방향과 계산, 안목을 가지고 구단 전체적인 틀에서 불펜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2, 승적 전쟁 한달앞으로

준 PO 다음달 18일·PO 21일...전남, 경남·대전과 막판 순위싸움

1부 승격을 향한 K리그2 팀들의 전쟁이 11월 18일 시작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4일 하나원큐 2020 K리그2 준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K리그2는 오는 11월 7일 열리는 최종 27라운드 일정을 끝으로 순위를 가리게 된다. 1위를 차지한 팀이 '우승팀' 자격으로 내년 시즌 K리그1 무대에 서 뒤흔게 된다.

그리고 2, 3, 4위 3개팀이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K리그1 '승격 티켓'을 가져가게 된다.

올 시즌에는 K리그1 11위팀과 K리그2 플레이오프 승리 팀이 겨루는 '승강 플레이오프'는 열리지 않는다.

K리그1 최하위인 12위를 기록한 팀이 자동 강등되고 또 상주상무가 연고 협약 종료로 자동 강등을 앞두고 있어서 '승강 플레이오프' 없이 K리그2 플레

이오포 승자가 1부로 향한다.

정규라운드 3위와 4위가 맞붙는 준플레이오프는 11월 18일 오후 7시 진행된다. 3위 팀 홈구장에서 단판 경기로 승부를 가리게 된다.

이 경기의 승자와 정규라운드 2위가 대결하는 플레이오프는 11월 21일 오후 3시 열린다. 역시 2위 팀 홈구장에서 단판 승부로 진행된다.

두 경기 모두 90분 경기 후 무승부가 기록되면 정규라운드 순위 상위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23라운드가 진행된 현재 K리그2 우승 싸움은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대결로 압축됐다.

두 팀 모두 나란히 승점 48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원이 45득점으로 제주(43득점)보다 2득점 앞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후 3위 서울이랜드(승점 34)를 필두로 4위 경남FC(승점 33), 5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3), 6위 전남드래곤즈(승점 33)가 박빙의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

전남 하승운·에르난데스 'K리그2 23R 베스트 11'

전남드래곤즈의 승리를 합작한 하승운과 에르난데스가 베스트 11에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4일 2020 K리그2 23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이끈 전남 하승운과 에르난데스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승운은 전반 6분 에르난데스가 왼쪽 측면에서 넘겨준 공을 받아 머리로 골대를 가르면서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전남은 하승운의 골을 잘 지키면서 세 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4강 희망을 이어갔다.

23라운드 MVP는 '눈물의 득점'으로 서울이랜드의 3위 도약을 이끈 김진환에게 돌아갔다.

지난 시즌까지 광주에서 뛰었던 김진환은 전반 18분 원발로 선제골을 넣는 등 맹활약하며 MVP에 등극했다. 득점 후 눈물을 보였던 김진환은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올 시즌 부상으로 경기에 많



하승운



에르난데스

이 뛰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했다. 또 축구 외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티 안나고 부주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싶었다. 그러면 중 골을 넣어 감정이 올라와 눈물이 났다"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서울이랜드는 베스트 매치와 베스트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모리뉴 감독과 호흡 환상적"

국내외 언론 화상 인터뷰

"감독, 토트넘에 성공 가져다 줄 분"

손흥민이 말하는 모리뉴와의 1년 "토트넘에 성공 가져다 줄 분"

"아마존 다크 속 내 모습, 묘하더라고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8)이 조제 모리뉴 감독을 향한 깊은 존경심과 믿음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손흥민은 13일(한국시간) 국내외 언론과 인터넷 화상 인터뷰에서 "모리뉴 감독은 '위닝 멘탈리티'를 가졌으며, 토트넘에 분명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제작한 '모 아니면 도 : 토트넘' 다크멘터리 시리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시즌 초반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구단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경질하고 모리뉴 감독을 전격 선임하는 장면으로 이 다크멘터리는 시작한다.

토트넘 훈련장과 경기장은 물론 라커룸과 식당 같은 '예민한 곳'까지 카메라를 설치한 이 다크멘터리에서는 선수들이 모리뉴 감독 선임에 알리는 TV 보도를 놀라는 표정으로 보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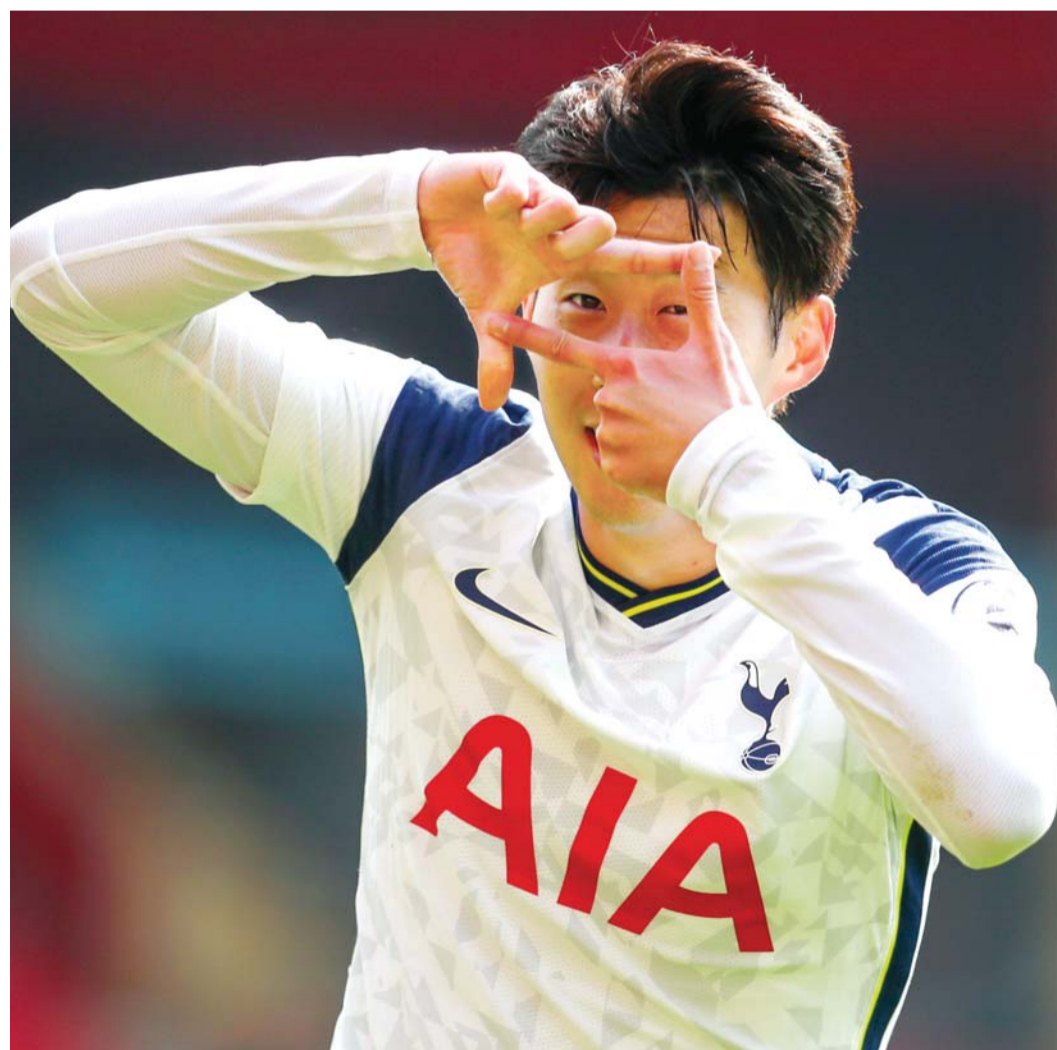
팀의 핵심인 손흥민은 대표팀에 소집된 상태에서 포체티노 감독 경질과 모리뉴 감독 선임 소식을 듣게 된다.

손흥민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날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을 설명했다.

손흥민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포체티노 감독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펐다"면서도 "모리뉴 감독은 내가 어릴 적부터 수많은 트로피를 수집한 분이어서 그가 나의 감독이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리뉴 감독과 보낸 지난 1년에 대해서는 "환상적이었다"고 크게 만족했다.

손흥민은 "모리뉴 감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서 "나



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즌 내내 '밀착취재'를 당한 소감도 밝혔다. 카메라에 찍힐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막상 다크멘터리를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손흥민은 "우리는 라커룸이나 식당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면서 "위고 요리스(골키퍼)와 다투는 장면도 그저 감정적인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해프닝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회면을 통해 본 라커룸 등등 우리의 생활 공간은 아주 묘하게 느껴졌다"면서 "내 모습과 목소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훈련, 경기 장면을 다크멘터리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게 이상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토트넘은 부침을 거듭하다가 결국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팀에 불행한 일들이 많았기에, 선수로서 좀 슬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